

■ 타계한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씨

# 투옥-수배-밀항 '고난의 인생'

## 귀국 후 5·18기념재단 산파역 운동권 '정략적 이용'에 쓴소리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명예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니고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은 광주 의 것도 구속자·부상자·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이며, 또한 5월이 광주의 5월로 올바로 서야 진정한 전국화·세계화가 가능합니다...』(『본보』지까지 '월간예향(月刊藝鄉) 1995년 7월호 '연구소 열고 노총각 면한 윤한봉 인터뷰')

27일 타계한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59) 전(前) 민족미래연구소장의 80년 5월 이후 27년은 '광주항쟁'이란 거대한 등장을 지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고 몸부림 친 역사의 시간이었다.

그는 '5월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명예나 보상금도 원치 않았다.

다만, 자기만의 방식과 고집으로 5월 정신계승에 힘썼다.

80년 당시 광주·전남지역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이었던 그는 5·18 직전 내란임무 중요종사혐의로 수배된다. 때문에 5·18 항쟁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다.

신군부는 광주지역 청년 운동권의 핵심인 윤씨를 붙잡으려고 혈안이 됐다. 운동권 내부에선 "윤한봉이 잡히면 수심 명이 다시 연행되고, 5·18 관련 수사가 전면 재개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

러나 그는 붙잡혀 동지들을 팔아먹기보다는 자살을 택하겠다며 흥기를 몰고 지니고 다녔다. 죽음의 현장에서 도망했다는 죄책감에 소리 없이 울 때도 많았다. 미국으로 밀항하기 전 11개월을 그렇게 살았다.

1981년 4월29일 밤 11시20분. 그는 후배들의 권유로 마산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4만급 무역선에 몸을 실었다. 밀치와 새우를 조금씩 뜯어먹으며 버틴 끝에 6월3일 시애틀 북쪽 벨링햄 항에 도착했다.

그는 LA 근교에서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 연합 등을 결성하며 12년 동안 조국 통일과 민주화를 지원해 오다 93년에야 수배가 해제돼 귀국한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광주는 예전의 광주가 아니었다. 5월을 생업화하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참다못한 그는 운동권 내부를 향해 "5월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독설을 퍼붓는다. 5·18 피해보상을 거부해 진형 광장 씨가 직접 서류를 작성, 보상신청을 했을 정도다. 이때 '광주의 쓴소리'라는 별명이 불고 냉대도 받았다.

그는 1994년 5·18 기념재단 설립을 주도했다. 산파역할만 하겠다는 공언대로 재단의 어떤 직책이나 지위도 마다했다.

지난 2004년에는 윤상원 열사 등 들불야학 출신 7 열사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단법인 '들불야학 기념회'도 설립했다. 이러한 중 폐에 공기 공간이 확장되는 폐기종(肺氣腫) 발병을 알았다.투옥(1974년 민청학련 사건)-고문(1979년 긴급조치 위반 체포)-밀항 과정에서 돌보지 못한 건강이 폐기종으로 불거진 것이었다.

그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이식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27일 오후 운명했다.

양강섭 '들불야학기념회' 이사는 "광주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져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프고 애석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3년 5월20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씨가 12년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고국에 첫발을 내디딘 뒤 재야 인사들과 열사하고 기뻐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선암사 '도난 탕화' 반환소송 패소

을 주고 샀고, B씨는 '팔상전팔상도' 2폭을 1981년 청계천 골동품점에서 1천만원에 구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도난품이란 사실을 모르고 골동품 가게에서 적법하게 매입해 10년 이상 점유해왔기 때문에 선의취득과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978년 순천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이 탕화들은 A씨와 B씨가 지난해 2월 '서울옥션 100회 기념경매'에 출품하면서 2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 도난품인 사실이 확인됐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도난당한 탕화의 반환을 둘러싼 재판에서 순천 선암사가 패소했다. 소송까지 간 탕화는 불화가 많이 나오지 않던 조선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들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27일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가 도난당한 탕화를 돌려달라며 제1회법 대표 A(70)씨와 B(56)씨를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가 갖고 있던 탕화는 1753년 제작된 '삼십삼조사도(三十三祖師圖)' 3점이고, B씨가 보유하고 있던 것은 1780년 그려진 '팔상전팔상도 사문유관상(八相殿八相圖 四門遊觀相)'과 '팔상전팔상도 설산수도상(八相殿八相圖 雪山修道相)'이다.

A씨는 '삼십삼조사도' 3폭을 1987년 답십리 골동품점에서 4천500만원

## 광주 편의점 강도

20대, 32만원 빼앗아

27일 새벽 4시45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O편의점에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침입, 종업원 이모(24)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2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편의점 CCTV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안경을 쓰고 왼손을 사용하는 키 180cm가량의 남성성을 쫓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 한밤중 탄저균 소동

편지에 백색가루...조사해보니 '밀가루'

26일 북광주우체국

지난 26일 오후 6시께 북광주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던 집배원 정모(40)씨는 백색가루가 흐르는 우편물을 발견했다. 발신자는 '0만호'였고 수취인은 충남 논산훈련소 내 '사서함 0-0번 26 교육대 교육생 체xx'였다. 김씨는 이 물질이 '마약'이라고 판단, 북부경찰에 신고했다. 봉투를 개봉한 경찰은 깜짝 놀라 군 부대에 연락했다. 봉투 안에 '네가 자꾸 내 별명을 부르고 나를 놀리니까, 나도 탄저균을 보낸다'는 내용이 적힌 편지와 1스푼 가량의 백색가루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밤 9시20분께, 육군 31사단 화학대 화생방 경찰차가 북부경찰서에 도착했다. 출동한 군인 4명은 공기호흡기와 방호복을 착용하고 세균 제독기도 가져왔다.

상본 조사는 1시간30여 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봉투에 있던 백색가루는 밀가루로 밝혀졌다. 한밤중 긴급 호출당한 군 화학대·기무부대·정보사·질병관리본부·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10여 명은 긴장이 풀리면서 허탈함에 빠졌다.

경찰은 이날 밤 편지를 보낸 대학생 안모(19·광주 C대 2년)씨를 붙잡았다. 안씨는 "지난 5월 훈련소에 입소한 친구가 자꾸 나를 놀리자, 나도 친구를 놀리기 위해 집에 있는 밀가루를 봉투에



육군 31사단 화학대 소속 군인이 화생방 경찰차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를 조사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집어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의 행동에 '고의성이나 누구를 해치려고 한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하고 풀어줬다.

군 화학대 관계자는 "탄저균 10kg은 도심 30km 내에 있는 90여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이라며 "만약 백색가루가 진짜 탄저균이었다면 감염된 사람은 산소결핍·가슴 통증·호흡곤란·폐혈증으로 24시간 안에 쇼크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7247) 김중두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방:(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성매매 업소 돌팔이 여의사 '달미'

○성매매 업소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성병 치료를 해온 40대 돌팔이 여의사(?)가 경찰에 달미.

○여수경찰청은 27일 의사 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영종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조모씨(여·46)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조씨는 지난해 1월 초순계 윤락업소가 밀집해 있는 여수시 한려동 이모씨의 집에서 A씨(여·26)의 방광염 치료를 위해 주사약을 투여해주고 그 대가로 2만원을 받아 쟁기 혐의.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여수·순천·광양지역 유흥주점과 성매매 업소 등을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1천880여 회에 걸쳐 무면허 시술을 해주고 2천500여만원을 챙겼다고.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특수학교 보건실에 도청장치

목포 시민단체, 수사 의뢰

목포의 한 학교 보건실에서 불법 도청장비가 발견됐다.

27일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특수학교인 I 학교 보건실 환풍구 간이침대 밑에 불법 도청장비가 있는 것을 박모(여·43) 교사가 발견했다. 도청장비는 침대 시트를 연결하는 테이프가 떨어져서 눈에 띄었다.

경찰은 녹음기능을 가진 이 장비는 은색 플라스틱 재질로 가로 5cm, 세로 10cm 크기다.

교사들은 이 도청기에 설치 당시 상황과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녹음돼 있는 점으로 미뤄 누군가 보건실에서 진행되어온 특정 교원단체 모임 내용을 몰래 듣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3시 전교조 목포지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정식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이 학교는 지난해 말 교장이 여교사를 수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新 브로드웨이 뮤지컬코미디

# 닌자 CRACKER

2007. 6. 30(토)~7. 1(일)

토 pm.4:00, 7:30 / 일 pm.3:00, 6: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출연: 조갑경, 심현섭, 김숙, 나정윤, 흥지민, 이정인, 김보라, 김두명, 장윤진, 김현석

주최: 광주일보사

주관: 공연마루

협찬: 호남대학교

인터넷예매: www.ticketmaru.co.kr

예매처: 광주우영 전자점  
삼복서점 / 현대백화점(10층 카드상품권 코너)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